

'김건희' 놓고 여야 대결 구도가 팔라져

野, 14일 본회의서 세 번째 특검법 표결 예고 무기명 재표결 국힘 이탈표 8표 나올지 관심 與, 같은날 특별감찰관 의총 합의 처리 전망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결 구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급수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

한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특검법,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한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연달아 폐기되자 한층 강화되고 광범위한 특검법을 또 발의했다. 세 번째 특검법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본회의로 넘어왔다.

특검법이 본회의에 오르면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과반 찬성을 얻어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재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주춧돌 돌 듯 '본회의 통과→거부권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관건은 윤 대통령의 재요구 이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국회의 재표결 결과다. 재표결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인데, 300명 전원 본회의 출석을 가정할 경우 무기명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지난 2월 첫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1표, 지난달 4일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4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세 번째 재표결에서 8표 이상 이탈하면 특검법은 재표결을 통과한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졌고 정의는 사라졌다"며 "우리 국민은 하루하루 절망을 느끼고 있는데 언제까지 김 여사만 감싸고 돌 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 여사만 있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

아 있다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비롯한 현안들을 논의한다. 추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의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표결 없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번 의총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는 날 소집된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 문제 해결과 특검법 저지를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필요하다고 이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 사퇴하면서 8년째 공석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면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진수기자

민주, 나선고 줄줄이 앞두고 김여사 특검 촉구 총력 공세

군소야당과 전날 2차 집회...금주말 나선고 다음 날 3차 집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 대외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열흘 뒤(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됐다. 이번 달에만 두 번의 '사법 리스크' 고비를 맞을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민주당은 무죄를 자신하고 있지만,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정치적 타격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에 지장을 줄 피선거권 박탈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2일에 이어 전날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것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1심 선고와 연관 짓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때문이다. 유죄 선고 가능성에 대비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당내 주도권을 다짐으로써 '이재명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군소 야당과 연대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촛불이 등장한 전날 집회에서는 군소 야

당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6일 예정한 3차 장외집회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4개 군소 야당과 공동 주최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선고를 전후해 주말마다 집회를 여는 것은 결국 "사법부 겁박이자 대통령 탄핵 빌드업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 문제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공언해 온 상황이고,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염두에 둔 여론전이라는 것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했고,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정권 심판론'에 부응하는 취지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선고 기일과 김 여사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 및 재표결 예상 시점이 맞물리면서 이달 내내 '총력 투쟁 모드'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협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협뉴스

"방위비 더 내야 한다면 미국산 무기 수입 줄이는 방법도..."

이재명 외신 초청 '트럼프 2기'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의 방위비 부담금 대폭 인상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방위비 총액을 대폭 늘릴 수는 없을 것이고, 정해진 방위비에서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면 미국산 무기 수입 규모를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외신기자 초청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상인적 현실감각이 극대화된, 매우 합리적인 현실주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시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북한도 한국 정부와 굳이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 '통미봉남(通美封南)'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한국은 북한에 대한 역

지력은 이미 확보한 상태인 만큼 다른 측면인 대화와 협상이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강 대 강' 대치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며 "국내 정치의 곤혹스러움을 피하기 위해 외교·안보 분야 희생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일관계에 대해선 "타국을 침략해 수백만을 죽게 하거나 삶의 터전을 떠나게 만들면 미안한 게 정상 아닌가"라며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기자

새미래민주당, 제2차당 결의대회 전병헌 '비상거국내각' 구성 제안

새미래민주당이 10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다이아몬드 홀에서 '제2차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광란의 정치, 반격의 서막'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제2차당 결의대회에서는 윤석열-김건희-이재명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고 대치 정국으로 일관하고 있는 양당을 비판하고 새미래민주당이 강력한 정치적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공개됐다. 이날 전병헌 대표는 반공냉전·신자유주의·뉴라이트 보수를 반대하고 적대적 전투주의 구(舊) 진보와 결별하는 포용적 개혁주의 정당 노선을 제시했다. 특히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의 붕괴를 대비할 '범민주 정치연합체'를 제안했다. 범민주 진영의 혼란과 분열을 해소하고 '총(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총리) 3김(김동연, 김두관, 김경수)' 등 범민주 지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출 수 있는 정치연합체에 대한 구상을 밝힌 것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모든 정당정치세력이 함께 하는 '비상거국내각'도 제안했다. 전병헌 대표는 "새미래민주당은 그냥 반이재명 정당이 아니다. 새민주를 두고 '반명, 반명' 하는데, 이는 우리를 너무 앞잡아보는 표현"이라며 "우리는 반명 정당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진 '새질서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방수제 · 바닥재 · 혼화제 · 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발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CHEMICAL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